

고용한파 속 황금연휴...달갑지 않은 취업생

국가고시 코앞...대기업 입사 시즌 막바지 집콕에 나홀로 추석 "고향 갈 면목 없어"

직장인에게는 꿈만 같은 추석 황금 연휴 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마냥 달갑지 않은 일이다. 방에 틀어박혀 국가고시나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에게 추석 연휴는 그저 사치다.

서울 노랑진에서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모씨(26·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이 다가오면 광주에 내려오지 않기로 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임용 티오(TO·정원)에 경쟁률은

떨어질 생각을 않는다. 지난해 중등 임용고시 국어 과목 광주지역 경쟁률은 22.8대 1. 1차 필기에 합격했지만 2차에서 떨어진 경험을 와신상담하며 이씨는 3수째인 올해를 마지막으로 고시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각오다.

이씨는 "부모님 얼굴을 뵈지 벌써 1년이 다 돼 하루만이라도 본가에 다녀올까 생각해 했지만 고시가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아 포기했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 모여서 문제풀이를 할 단기 스터디 모임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대기업 입사를 노리는 박모씨(27)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NCS와 직무기술서 등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대체로 대기업들의 공채 시즌이 9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어서다.

박씨는 "지원 기간이 막바지지만 아직도 포스코, KT, GS 리테일 등 목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기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원서만 내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별로 눈높이나 면접 등 준비할 것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당장 입사 준비를 하지 않는 취업생이나 대학생들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가뭄이 서로 불편하기만 하고 지출만 커져 차라리 단

기로 일하거나 공부를 하겠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광주에서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씨(30)는 "내년 4월 시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본가인 전주로 가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 전남대학교 학생 이모씨(22)도 "단기로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방에 연락이 닿아 연휴 동안 일하는 한편 기숙사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많은 취업생 325명에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명절을 보내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57.2%가 '하고 싶다'고 답했다.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알바생 677명에게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지를 물은 결과에서도 72.1%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3.3%는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처럼 연휴 기간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의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일할 사람은 넘쳐나니 지원을 해도 연락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대학생 심모씨(24)는 "지난달 말부터 단기 알바 공고가 뜬 가계 10곳 정도에 지원했지만 겨우 1곳에서 전화가 왔다. 그마저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20~27	순천	20~26	광양	20~24
나주	19~27	목포	20~26	여수	21~24

일출 06:16 일몰 18:38
월출 16:00 월몰 00:46

장성	18~28	흑산도	22~24
담양	18~28	구례	18~27
화순	19~27	곡성	17~27
영광	18~27	완도	21~25
함평	19~27	강진	20~26
무안	19~27	장흥	20~25
영암	20~26	해남	20~25
진도	20~26	고흥	20~25
신안	20~26	보성	19~24

목포	만조 09:34 22:53	여수	만조 05:09 18:32
	간조 03:28 15:13		간조 11:09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조선대병원노조 13일만에 파업 철회

호남권역재활병원 시정점거 농성

전남대병원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노조에 이어 조선대병원 노조가 파업 13일 만에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 반면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시정 점거 농성에 들어가는 등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대병원 노사는 올해 임·단협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족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며 지난 2일부터 개별 파업에 돌입했다.

조선대병원 직원 1,500여명 중 조합원은 1,100여명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코로나19 관련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사는 향후 7년에 걸쳐 환자이송원, 업무보조원, 조리사 및 조리원, 장례지도사, 세탁운반원 등 계약직 150여명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2년, 고용직(별정직) 3년을 거쳐 관리운영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일정 단계 이후에는 승급이 되지 않고 호봉만 오른다.

보건직, 간호직 계약직 25명에 대해서도 1년에 5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서별로 부족한 인력도 점차 충원해가기로 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광주시정 로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원 100여명은 15일 광주시정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공병원인 호남권역재활병원의 파업사태를 광주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의료진들은 '살인적인 업무량과 강도를 호소하며 의료인력 충원,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14일째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진 보건의료노조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 조직국장은 "의료진들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화장실조차 가지 못한 다"며 "이 때문에 방광염을 앓는 등 근무의 질이 낮다"고 호소했다.

이어 "치료사 1명이 13명의 환자를 담당하는데, 환자 1명당 30분의 치료 시간이 소요된다"며 "치료시간 중간중간에는 쉬는 시간도 없다. 인력을 충원해 근무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나라 기자



안전한 추석 캠페인 15일 광주시 서구 상무역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떡과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붕괴 책임 입주민 전가”

학동참사 대책위 성명서

광주 철거민들 붕괴참사 책임을 재개발사업 시공사와 조합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에 공사비 1,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참사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했다는 이유로 ‘형식은 증액 요구인데 시공사와 조합의 공모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대의원대회를 열

어 참사 유가족에게 먼저 15억원씩 보상금을 주고 나서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증액 협상을 통해 되돌려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긴 돈으로 참사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행정 조사로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공모 정황을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민빈 기자

태풍 ‘찬투’ 오늘 오후~내일 본격 영향

제14호 태풍 ‘찬투’가 16일 오후부터 17일 사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남부지방에 돌풍을 몰고 오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340km 부근에서 시속 9km의 속도로 북북동진했다.

찬투는 17일 제주도에 근접해 오전 중 제주도를 지나며 밤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제주도 16일 오후~17일 낮, 전라권 17일 새벽~오후, 경상권 17일 아침~밤이 될 전망이다.

이 시기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0~300mm(많은 곳 제주도 산지 400mm 이상), 전남 동부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남부지방 10~60mm(전남 동부, 경남권 해안 제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50~80mm 이상이다. /김민빈 기자

5·18기념재단 ‘아시아인권현장’ 출간

5·18기념재단은 제15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해 ‘아시아인권현장’을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1998년 선포된 ‘아시아인권현장’에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의 일반원칙,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평화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과 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장을 보조하기 위한 ‘정의권, 평화권, 문화권을 위한 부속문헌’ 제작에 돌입해 2019년 5월 발표했다. 부속 문헌 제정위원이었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의를 작성해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오선우 기자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카페

객실

메식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